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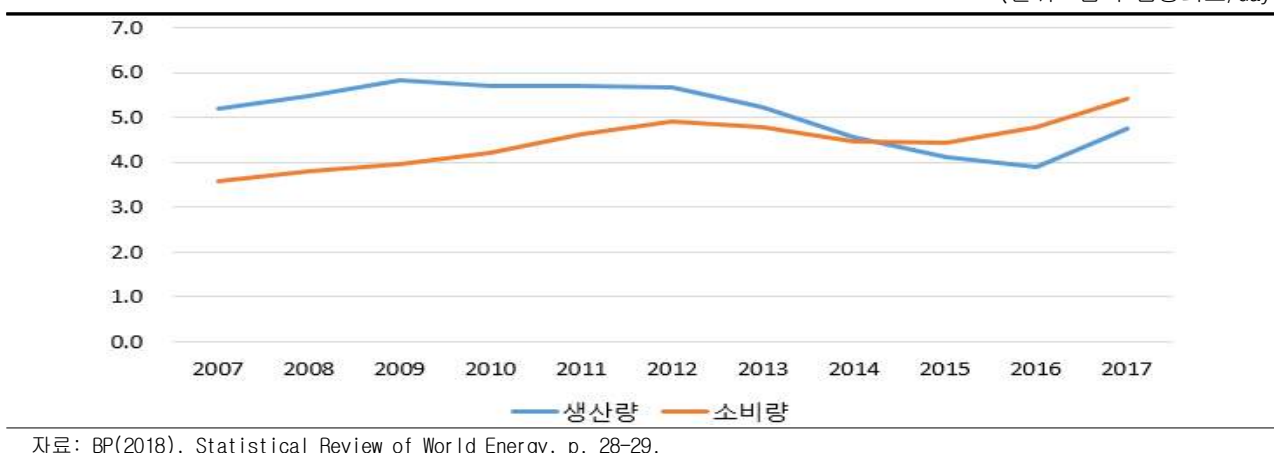


 <p>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p> <p>http://www.emerics.org/</p> <p>2018. 10. 12. 아프리카중동</p>	<p>「이슈&트렌드」</p> <p>이집트 천연가스 수출 재개 임박</p> <p>작성 유광호 연구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p>
---	--

- 2014년 천연가스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던 이집트가 자국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2019년 1월 중에 이에 대한 수출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임.
- 이집트는 아프리카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확인매장량 기준)으로 걸프 지역 등 주변국에 이를 수출해왔으나, 2011년 발생한 아랍의 봄의 여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14년 천연가스 순수입국으로 전락함.
 - 이집트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1년 일산 57억 입방피트에서 2016년 39억 입방피트로 5년간 31.6% 감소하였음(그림1 참고).
 - 이는 아랍의 봄 이후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 및 외환보유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가스전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이집트 천연가스 생산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9월에는 일산 66억 입방피트를 기록하여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분을 충족함.
 - 이에 지난 9월 29일 이집트 석유부는 2018년 9월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앞선 9월 23일에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요르단과의 협상이 완료되어 2019년 1월부터 이를 재개할 예정임을 밝힘.
 - 이집트는 천연가스 수입 중단으로 2018/19 회계연도에 약 3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¹⁾

그림 1. 이집트 천연가스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단위: 십억 입방피트/day)



1) 이집트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 까지임.

- 이처럼 이집트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대규모 가스전 발견과 엘시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음.
- 30조 입방피트 규모의 조흐르(Zohr) 가스전, 90조 입방피트 규모(추정)의 누르(Noor) 가스전 등 최근 3년간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서 대규모 가스전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음.
 - 2017년 12월 생산에 돌입한 조흐르(Zohr) 가스전은 확인매장량 기준 지중해 최대 규모임.
 - 2018년 6월 발견된 누르(Noor) 가스전의 규모는 기존 이집트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63조 입방피트(2017년 기준)의 142.9%에 달하는 90조 입방피트로 추정됨.
 - 2014년 집권한 엘시시 정부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채납금 지불을 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가스전 개발 사업 발주를 대폭 확대함.
 - 이탈리아 ENI, 영국 BP 등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채납금은 2013년 63억 달러에서 2018년(6월 기준) 20억 달러로 감소함.
- 가스전 탐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집트 천연가스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이 재개되면 가스관 건설, LNG 수송용 선박 건조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경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2017/18 회계연도 이집트 석유·가스 부문 외국인 투자규모는 전년 80억 달러 대비 25.0% 증가한 100억 달러를 기록함.
 -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와 더불어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집트의 만성적인 외환 부족으로 인한 경제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음.
 - 이집트는 외환 부족 문제로 2016년 11월부터 총 12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음.
 - 천연가스 수출이 재개되면 중장기적으로 가스관 건설, LNG 수송용 선박 건조 등의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수입에 있어 카타르와 호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이집트로 천연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표1 참고).
 - 이집트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에 천연가스를 수출한 바 있음.
 -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의 32.6%(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카타르와의 장기 도입계약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임. **EMERiCs**

표 1. 관세 인상 품목 및 변동 내역

순위	국가	수입액(천 달러)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
1	카타르	5,095,127	32.6
2	호주	2,911,703	18.6
3	오만	1,926,786	12.3
4	말레이시아	1,452,435	9.3
5	인도네시아	1,243,033	8.0
6	미국	805,664	5.2
7	러시아	711,007	4.6
8	브루나이	614,374	3.9
9	나이지리아	301,582	1.9
10	페루	143,491	0.9

주: 2017년 기준임.

자료: KITA, K-stat, 품목 수출입(검색일: 2018. 10. 4.).